

40. 모든 것이 평상시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2015.04.07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오 주님, 시간이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까요. 너무 많은 영혼들, 너무 길을 잃고,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저는 그들에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도 알아.

(클레어) 저희에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까요.

(예수님)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어.

(클레어) 하지만 모든 것들이 평상시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사고 팔고 그리고 결혼하는것?

(클레어) 네. 세상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매우 안정적으로 보여요.

(예수님)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게되지 않을 거야. 뒤에서는 현재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클레어) 사람들은 반응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들은 두려워해.

(클레어) 적어도 그들은 반응하고 있어요. 저희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을까요?

(예수님) 만약 내가 아는 것을 너가 안다면, 너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야.

(클레어) 저는 매일 이것과 고군분투해요. 세상이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정상적이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과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예요.

(예수님) 나를 가진 것이 기쁘지 않아?

(클레어) 오 맏소사. 예수님, 주님이 없는 것은 삶이 아니라 악몽을 겪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 나는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 왜냐하면 나는 장단점을 저울질하고 있고 너와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삼위일체)는 실제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지만 너는 그렇지 않아. 이것은 현상유지야. “나의 사과수레를 뒤엎지 마세요. (이미 계획된 것을 망치지 마세요.) 내가 이 사과들을 시장에 내놓아 팔고 이익을 얻어 쇼핑을 하게 해주세요. 그냥 저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어. 그 동안 다른 사람들은 몰래 그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워. 그들은 편하게 그들의 계획을 세워. 왜냐하면 대중들이 여전히 그들의 수레를 사과들로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이고, 대중들이 계속해서 그렇게하는한 그들은 만족해할 거야.

종교의 자유, 자유 발언권,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와 확보를 가치있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악함으로 가득차서 그들이 분명히 볼 수 있는 것들을 피할 계획을 세워. 또 다른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내가 그들을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클레어, 이것이 바로 너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너의 앞에 있는 삶은 여러 층이 만들어져 살고 있어. 한 층에는 사과수레가, 다른 층에는 지배가, 또 다른 층에는 자유가, 또 다른 층에는 천국이 있고, 모든 층이 너의 앞에 있어. 너는 매일 너가 살게될 층을 반드시 선택해야해. 어떤 층이 너의 현실이고, 누가 너의 주인이고, 너가 누구를 섬길지. 그 층들 중 하나가 폭발하여 다른 층의 권리들을 빼앗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뒤엎어지면 사람들은 말할 거야.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났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립되어진 층에 너희들이 살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너희들은 그 층에서 성공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그 층의 너머를 보지 않았어. 그리고 어느날.. 모든 것이 끝나고 너희들을 혼란에 빠져 우두커니 서있어.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아직 우두커니 서있을 수 있는 운이좋은 사람들 중 한명이라면.

땅이 무너질때 그 땅의 기름진 것들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을 거야. 오직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통한 기억만 있을뿐이야. 그러면 그 돌무더기 잔해들 속에서 그들은 나를 찾을 거야. 그들은 세상과의 그들의 사랑이 그들을 벌거벗기고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찾으면, 나는 그들을 안고 그들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함으로 일으킬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휴거 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대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야. 이것은 그들의 운명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제공되고 성공이 그들의 전체의 삶의 초점인 고립된 층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이야. 그래, 그들은 세상을 선택하였고 그것은 그들을 내 앞에서 벌거벗기고 눈이 가려진 채로 두었어. 그리고 나는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것을 허용하였어. 이렇게하지 않았다면 지옥이 채워질 거야. 그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단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무신론자들일뿐이야.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나의 자비로운 행위야. 이러한 재앙을 허용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야. 벌거벗겨짐만이 오직 그들을 나에게 데려올 거야. 그들이 위안과 진리를 찾으려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모래위에 집을 지었는데 비가와 홍수가 나서 모든 것들을 휩쓸어버리면 그 사람은 반석위에 집을 짓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할 것이고, 나는 그곳에서 그 사람을 가르칠 거야. 그러므로 너는 임박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자녀들을 영과 진리로 나에게 다시 데려오기 위한 나의 준비임을 알 수 있어.

그래, 이것은 가혹해. 그래, 이것은 잔인해. 그래, 이것은 불공평해보여. 하지만 사람들이 10대 아들에게 차를 사거나 호화로운 집을 짓기 위해 제3세계의 매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느라 바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가장 밑바닥의 현실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희들의 생활방식을 모범으로 바라보지만, 너희들이 계속해서 번영하면서 종속된 문화와 경제에 절망적으로 포로가 된 나라들.

클레어, 이것은 정말 매우 슬퍼. 너가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착취당하는지야. 내가 농부를 위해 씨앗을 만들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탐욕스럽고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씨앗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사게하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강구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더 나빠질때까지 내버려둬야해?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날마다 나의 귀에 들려. 그들이 필수 의료품조차 부족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 너의 나라에서는 의료수준이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이익과 더 많은 통제권을 얻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번성할 수 있는 더 새롭고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

오, 이것은 모든 이유를 넘어서서 타락한 것인데 왜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시간을 1분이라도 더 가지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해?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세상에서의 으뜸과 사치에 대한 그들의 욕망이 그들이 불의한 생활방식을 살도록 완전히 눈멀게 하였어. 나는 보통 이러한 이야기들을 너에게 가져오지 않지만 나는 너가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해. 내가 매일 반드시 봐야하는 타락의 측면은 압도적이고 정의를 부르짖게해.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러한 문화적 범죄의 설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자원들과 돈을 짜내면서 그들의 삶의 기초자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 이것은 한가지 측면에 불과하지만 불안, 증오, 절망을 가져와. 무슬림들이 순교를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 절망적으로 타락하고 뒤엎힌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이야.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죽는것 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대의명분을 위해 사는것은 결핍의 고통을 가리고 그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줘. 그래서 사탄은 그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불의로 인해 지구에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기회를 제안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잡아먹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은행가들과 세계 지도자들을 증오해야하지 않겠어? 이것은 또 다른 성취감이 있어. 창녀를 파괴하는 것. 이것 또한 영광이야. 그래서 너는 이 문제가 절망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돌아가서 지배하고 통치할때 쇠막대기는 심지어 가장 낮은 사람들도라도 흠치고 폄하하는 사람들의 등을 부러뜨릴 거야.

정의와 영예는 그것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거야. 진정한 직업과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영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제공될 것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번영할 수 없고, 나를 섬기려는 진지한 헌신과 열망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처음부터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할 필요성을 깨닫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거야.

클레어, 우리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해. 다른 방법은 없어. 희망을 잃지 말아라. 나는 그것을 바로잡으러 가고 있어.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을 거야. 나는 너에게 약속해. 비록 나는 너가 돕기위해 더 많은 시간을 원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동안 천국에서의 휴가를 기대하려고 노력해라.

너희들의 신만이 오직 가질 수 있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더 데려오고 싶어하는 사랑으로 너희들 모두를 사랑해.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이 나를 위한 공간을 점점 더 많이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너희들의 삶을 개선하기를 요청해. 그러면 언젠가는.. 너희들의 고통과 기도와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거야.